

나의서원 나의 신행 <4>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보현행원’ 삶의 지침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송석구 위원장은 ...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에서 철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교수로 역임했다. 동국대학교에서 중앙도서관장 의료원장 부총장 등을 거쳐 제13대와 14대 총장을 역임했다. 동덕여대 가천의대 등의 총장을 지냈고 국제신문 대표이사를 거쳐 명예회장이었다. 대한불교진흥원과 불교방송 이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밝은사회 국제클럽한국본부 대표이사 및 총재를 지냈다. 국립 키르키즈대학교에서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으며(1997), 국제클럽 한국본부 에메랄드상(2011), 일맥 문화대상 학술부분(2003), 청조근정훈장(2003) 을국대상 학술부분(2000) 등을 수상했다.

하루는 한 생이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태어났고 저녁에 잠자기 위해 눈 감는 것은 죽는 것이다. 그 죽음은 다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삶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매일 반복되는 삶과 죽음, 그 속에서 하루를 한 생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한 순간도 게으르거나 부정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한 생처럼 사는 하루 동안 우리는 몇 번이나 자신을 향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을까? 아니, “잘 산다”는 기준이나 세우고 사는가?

《중자》는 날마다 ‘사람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충성스럽게 하였는가? 벗과 더불어 사귀되 믿음을 잃지는 않았는가? 스승에게 배운 것을 익힘에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며 하루 3가지를 반성하라[三省]고 가르치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 송석구(宋錫球 73) 위원장은 매일 8가지를 살핀다. >오늘 한번이라도 남을 존경하였는가? >칭찬하였는가? >배필었는가? >참회하였는가? >함께 기뻐하였는가? >경전을 읽었는가? >남의 뜻에 따랐는가? >나의 공덕으로 여겼는가? 등이다.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시절에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주도했던 ‘청정운동’의 실천지침이다. 송 위원장은 양복 안주머니에 이 내용이 적힌 청정운동 실행수첩을 넣고 다닌다. 퇴근길이나 저녁 식사 후 등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낱알의 향목을 읽으며 체크를 한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세상이 깨끗하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나보다는 남을, 개인 보다는 전체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행동에 모자람이 없어야 하고 나와 인연 지어진 많은 사람들에게도 충실해야 합니다. 나의 안과 밖을 수시로 살피지 않으면 내 삶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이고 나의 정체(停滯)는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도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현보살의 10가지 서원은 모든 부처님을 예배 공경하고(禮敬諸佛),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탄하고(稱讚如來), 모든 부처님을 널리 공양하며(廣修供養), 스스로의 업장을 참회하고(懺悔業障), 남의 공덕을 따라서 기뻐하며(隨喜功德), 부처님이 설법해 주기를 청하고(請轉法輪),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래 머무르기를 청하고(請佛住世),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常隨佛學), 항상 중생들에게 순응하며(恒順衆生), 두루 모든 것을 가지고 회향하는 것(普皆迴向)이다.(송 위원장은 기사에 보현보살 10대원의 항목을 다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내용일지라도 한 번 더 읽으면 좋은 것이라며)

송 위원장에게 보현보살의 10대원은 일생의 지침이다. 그 인연은 불광법회의 범주로 도심포교의 현대적 방향을 제시한 광덕스님으로부터 비롯됐다.

“1963년에 해병대 장교로 임관해 관측임무를 맡고 있었어요. 날마다 새벽 3시 30분에 기상했는데 일어나면 제일먼저 광덕 큰스님께서 만드신 책을 읽

었습니다. 광덕 큰스님께서 ‘보현행원품’을 강의한 내용을 등사(謄寫)해 제본한 것이었는데 계속 반복해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특히 ‘극미진수 제불세존을 예배하고 공경하라’ 등의 표현을 보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 분인데 그렇게 무수한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품고 수없이 보현행원품을 읽었는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나서 광덕 큰스님의 범문을 듣다가 문득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량한 부처님은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란 뜻임을, 사람에게 기도하고 사람을 공경하고 사람을 찬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니까.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바로 일체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지혜입니다. 물론 일체 생명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 모든 생명, 구류중생을 다 포함한 총체적 개념이구요. 오랜 시간 품었던 화두를 깨치고 나니 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50년전 광덕스님 강의 ‘보현행원품’ 만나 “일체 생명 부처님으로 공경 찬탄하라” 마음 열고 대화하면 소통과 통합 이뤄져 ‘보현행원을 국민 행복운동으로’ 발원

그로부터 송 위원장의 삶은 서원의 실천과 성취로 직조(織造)되고 있다.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라는 서원은 금생을 두고 매진해야 할 총원이고, 당면한 소임을 수행하며 세우는 많은 목표들은 그때그때의 발원인 셈이다.

송 위원장은 어떤 목표로 정하고 나면 그 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 사람들은 ‘해병대 기질’이라고 말하지만, 기질이 아니라 노력이다. 보현보살의 행원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지한 수행이 ‘불도저’의 이미지로 보인 것일 뿐이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32년 동안 수유리에 살면서 27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화계사에 가서 108배를 한 것이다. 보현행원의 삶을 살아가는데 게으르지 않기 위해 시작한 108참회 기도가 자연스럽게 일상이 되었었던 것.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묻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다. 하기로 마음먹고 하면 되니까. 날마다 108참회문을 읽으며 절을 하고 <금강경>과 <보현행원품>을 독송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하심의 도리를 몸이 익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무너지기도 하지요. 1990년에 동국대 총장 투표에서 1등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이사회가 미뤄지더니 결국 이사회에서는 다른 분을 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때의 마음은 정말 지옥이었습니. 실망과 속구치는 화를 억누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빨리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금강경>의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남의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은 탓으로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마땅히 아득다라삼삼보리를 이루리라’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사님들께 전화를 드려서 ‘전생의 죄업을 소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었고 새로운 출발의 에너지였습니다.”

보현행원을 서원하지 않았다면 참기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지혜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지혜는 다시 서원을 세우게 했고 그 서원은 성취되었다. 1995년부터 동국대 총장을 맡았다. 제13대와 제14대 총장 소임을 맡은 8년 동안 많은 목표를 설정해 행원의 날들을 바쁘게 달렸다.

면학풍토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변화는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불교병원 설립과 37년에 걸친 한글대장경 완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등 숙원사업들도 마무리 했다. 물론 총장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도 아침마다 화계사로 달려가 절을 했고 독경과 참회기도를 했다. 다가오는 역경(逆境)이 수없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참회기도를 통해, 보현행원의 서원을 통해 하루도 꺾어 있지 않은 날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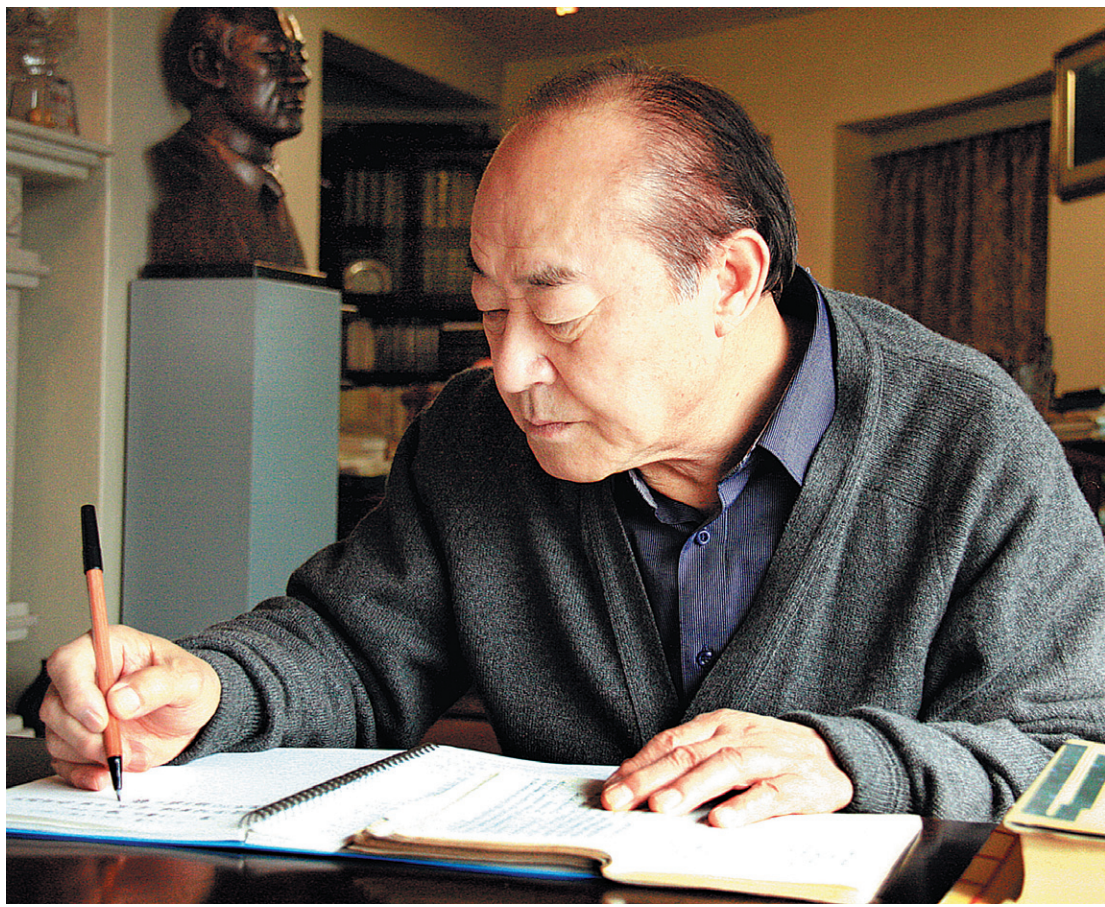
“보현행원의 삶은 깨어 있는 삶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은 모두가 깨어있기 운동인 겁니다. 일체 모든 생명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향해 공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함께 기뻐하는 등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모든 것이 내가 깨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번뇌 속에서 깨어나면 보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번뇌 속에 있음을 알아차릴 때 번뇌를 물리치는 힘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각(覺)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각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보리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번뇌인지 뭔지도 모르고 해마다 보면 영원히 미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번뇌가 번뇌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인데 꾸준한 기도와 행원이 지혜를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절을 하고 독경하고, 사경 하는 일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번뇌를 물리치고자 한다는 건 옳지 않은 자세지요. 행원이 없는데 어떻게 보리가 있겠습니까?”

송 위원장은 요즘 사경삼매에 빠져있다. 2004년 평창동으로 이사를 하고 난 뒤부터 108배를 그만 두고 사경을 한다.

<금강경> <육조단경> <선가귀감> 등을 반복해 사경한다. <금강경>은 반야의 지혜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고 <육조단경>과 <선가귀감>은 반야를 체득하여 실천하는 도리를 가르치고 있다. 사경이 보현행원의 힘이 되는 것이다.

“총장직을 마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듣기 거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말하자면 ‘격하운동’이 벌어진 것인데, 뭐 그리 연연할 것은 없었지만 또 한 번

Advertisement for Chanduk Buddhism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LED lamps, incense burners, and prayer wheels,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ervices.



27년간 매일 새벽 화계사에 가서 108배 정진을 해온 송 위원장은 이사하면서부터 매일밤 사경을 한다. <금강경> <육조단경> <선가귀감>을 반복해 쓰는데 요즘은 <선가귀감>에 빠져있다.

큰 마진이 닳쳐 온 것은 분명했어요. 그러던 차에 평창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화계사를 다니기엔 좀 어려웠어요. 100일 동안 아침마다 삼성암에 다니면서 참회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주변 사람들이 사경을 하라고 권하더군요. 그 권유가 가슴에 와 닿기에 시작했어요. 임거나 외기만 하던 경전을 손으로 쓰면서 의미를 새기니까 얼마나 깊이 와 닿는지, 신심이 나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마음도 편해지고 새로운 힘도 생기더군요.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 사경은 참으로 좋은 수행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한 대목을 쓰고 뜻을 새기는 동안 하루의 번잡한 일들이 잠잠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소속기구다. 우리 사회의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유도하고 삶의 가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대 위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제2대 위원장을 맡았다.

"사회통합이나 소통이라는 말은 특별한 이념이 아닙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사회를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지요. 소통은 대화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 그것이 화평이고 원용의 정신 아닙니까? 굳이 불교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모두 한 바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 소통의 근본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나를 변화시켜 마음의 문을 열 때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있음으로 이해가 형성되고 그를 통해 사회통합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상생발전(相生發展). 송 위원장은 이 단어를 사회통합위원회 제2기의 화두로 삼았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서원을 세운 것이다. 물론 보현행원이라는 실천운동 속의 별원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데



"붓끝에 마음을 모아 사경을 하면 하루가 정리되고 내일을 위한 새 힘이 생긴다"고 송 위원장은 말한다.

8가지 실천지침 매일 점검

- ① (오늘 한번이라도) 남을 존경하였는가
- ② 칭찬하였는가
- ③ 배풀었는가
- ④ 참회하였는가
- ⑤ 함께 기뻐하였는가
- ⑥ 경전을 읽었는가
- ⑦ 남의 뜻에 따랐는가
- ⑧ 남의 공덕으로 여겼는가

“

입고 외우기만 하던 경전을
쓰면서 의미를 새기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힘도 생겨요
사경은 참 좋은 수행입니다

”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목표(서원)에 생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백척간두까지 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진일보의 용기를 얻겠습니까? 의심할 수 있는 끝까지 의심하고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힘까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목표(서원)를 세우기는 쉽지만, 꾸준한 정진이 받쳐주지 않으면서 흐지부지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 성철 스님께 가서 일주일동안 3천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많은 것을 느끼고 큰 힘을 얻었어요."

송 위원장은 최근 가천의대 총장직을 놓았다. 일년 후에는 사회통합위원장 소임도 놓게 될 것이다. 일에서 조금씩 멀어질 나이가 된 것인가? 그러나 7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다. 몸도 마음도 건강하다고 자부한다. 오래 절을 한 내공이 육신의 건강을 끌어주고 있다.

지금의 일들을 놓은 뒤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곧바로 답을 내놓았다. "하던 일 더 열심히 하는 것" 이란다.

"하시던 일이라고요?"

"그럼요. 하던 일이지요.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진흥원에서 청정운동을 했던 것처럼, 보현행원으로 살아가기 운동을 할 겁니다. 캠페인도 벌이고 강연도 하고 관련 모임도 만들어 확산시키고, 할 일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자는 물론 온 국민이 이 마음으로 산다면 그게 정토잖습니까? 서로 공경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삶은 종교를 떠나 행복을 만드는 지름길이니 국민운동으로까지 승화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글·사진=임연태(시인·본지는설위원) mian1@hanmail.net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주객합일

공부를 하는 것은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 가운데 겪는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후가 주는 변화, 주변 환경이 주는 영향, 들끓는 심경의 변화 등 이루 헤아리기 쉽다. 이러한 과정을 이겨내는 길은 단연 인욕이 으뜸이다. 사바세계의 사바(saha)는 '참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응당 세상사를 참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지녀야 한다고 본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정상을 정복한 묘미를 맛볼 수 있다. 가다가 중도에 그치면 시작하지 않은 것이나 결과적으로 뭐 하나 다룰 바 없다. 일가(一家)를 이룬 사람의 경우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참 없이 자기 길을 뚝뚝뚝 끊고 결눈질도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소리꾼의 모습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판소리는 조선조 중엽 이후 가곡과 함께 성행해 오늘날까지 민속의 부문의 절대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향토적인 선율을 토대로 진양조·중모리·자진모리 등 여러가지 장단에 의해 부단히 변화를 주고 있다. 아니리와 발림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두는 점은 판소리만이 갖는 특징이다.

판소리라 하면 당연히 추임새를 연상하게 된다. 추임새는 고수(鼓手)가 중간중간에 흥을 돋우기 위해 삽입하는 탄성으로서 '좋다' '오이' '일씨구' 등을 말한다. 고수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일고수(一鼓手), 이명창(二名唱)이란 말이 통용되고 있다. 아니리는 참을 하는 중간에 장면의 변화나 정경 묘사를 위해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창이 아닌 말이다. 발림 또한 극적인 효과를 위해 창하는 사람이 곁들이는 몸짓이나 손짓으로 너름새라고도 한다. 명창이 부채를 들고 퍼기도 하고 접기도 하는 행위이다. 서양의 오페라나 오케스트라와 견줄만한 차연 높은 예술작품이라 할 만하다.

명창의 특 트인 소리만으로 무대가 가득 채워질까. 아니다. 고수의 호흡이 깃들어 어울어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혼연체란 객석에서의 호흡이 더 할 때 가능한 일이다.

<도회보감(圖繪寶鑑)>에는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가 있다. 그 가운데 대승(大崇)이란 화가의 일화가 있다. 그는 스승 한광에게서 그림을 배웠는데 제주가 없어 늘 꾸지람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는 묵동과 소를 잘 그려 스승도 견주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소의 담홍색 눈을 신비롭게 그렸다고 한다. 단청(丹青)이란 그림을 말하는데 원래 붉음(赤)과 푸름(靑)을 말했으나 그림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였다. 색채를 잘 써서 그림의 묘한 묘사를 하는 동작을 은유한 말로 대승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 <심우도>에 대승종차묘단청(大崇從此妙丹青)이란 말은 '화

공 대승이 이로부터 멋진 그림을 그렸는데'라는 말이다.

대승은 묵동이나 소가 그의 대상이 아니고, 묵동이나 소는 그의 붓 끝에 녹아들어 붓 가는 대로 묵동이 나오고 소가 생동했던 것이다.

시험이란 학교라는 국한된 공간에서만 치러지지 않는다. 세상 도처에서 시험이 치러지고 있다. 학교에서의 시험이라야 범위가 배운데서 배운데 까지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겪어야 하는 시험범위는 무한대이다. 도시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한다.

저 사람의 됴됨이가 어떠한지 시험해보고자 하면 일차적으로 먼 곳에 심부름을 보내보라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충성심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곁에 두고 일을 시켜보면 공정심이 어떠한지 살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시켜보면 그의 재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술을 많이 마시게 한 후에 그의

사바세계 '사바' '참는다'는 뜻 '참을 줄 알아야 정상 맛본다'

거동을 보면 그의 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남녀가 함께 어울리는 곳에 보내 지조를 살펴 볼 수 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어느 조직의 보스로부터 이러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수험생이 아닌지 자기 성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험이야말로 매섭고 어려운 시험이 아니겠는가.

절기에는 춘하추동이 있고 조석의 구별도 뚜렷하다. 사람은 의도만 보고 속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인간의 마음은 원용이가 재주부리는 것과 흡사해 가만히 있기를 거부한다. 참지도 쉬지않고 연속적으로 움직인다.

합일이란 안정을 의미하고 편안함이다. 나와 화두가 어울림이 없이 각각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와 화두는 주객이 아닌 합일상태에 들어간다. 간화선이란 나와 화두의 개함을 말하며 개함 없이 전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도가 터진대거나 도를 깨는 말은 물건이 깨어지듯이 뭔가가 깨지고, 풍선이 터지듯이 뭔가가 터지는 것을 도를 깨는 것으로 착각을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일이다. 아마 옛선사들의 표현방식에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음알이에 집착해 거기에 머무르면, 그 알음알이가 나를 망치게 된다. 알음알이를 형상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은 신기루와 같기 때문이다.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100질 한컷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트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중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집 | 금강 | 최고급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미세 80그램 | 율게이스 | 전철2도 인쇄

현대불교
현 불 샵 02)2004-8215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 규격선택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주크

소원성취 인등 및 시리함

고추구 12B 인자구 26E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빠른 접수 10년 5년 불제해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 6

- ▶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의 전기소요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형)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영사용) 달림이 방식

노랑, 진분홍, 백색, 연분홍

▶ 가장 밝은 건전지 초(LED방)

LED전구, DC 9V 백색, 노랑, 빨강

▶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람,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